

수유리 대화문화아카데미를 찾아서 대화의 정신, 닫힌 사회를 열어내다



고대 그리스의 아케데모스 숲 속에서 철학자들이 벌였던 대화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학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현학

적으로 되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비켜가지 않는다. 그러한 갈등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아카데미란 아카데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

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지성이어야 한다는 걸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바로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거쳐 간 지성들이 그들이다.

중간집단 육성 프로그램의 단절

1979년 3월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커다란 시련에 부딪힌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간사 6명이 반공법 제4조 1항(용공서클 조직, 불온서적 탐독)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 끌려갔다가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교육생 700여 명이 구금 혹은 문초를 당했다. 사무실은 수색영장도 제출하지 않은 중정 요원들에게 압수수색 당했으며 결국 당시 원장이었던 강원룡 목사도 중정에 연행되어 6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가 진행되던 동안 이 사건은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4월 16일 중앙일간지들이 일제히 중정의 발표문 그대로 '불법 용공서클 일당 검거'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사건의 공판은 매주 1회 혹은 2회씩 계속되었는데,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던 7회 공판 때 구속자들에게 고문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폭로되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 세계교회협의회(WCC), 독일교회연합회, 유럽에큐메니칼연합, 미국연합장로교회 등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를 파견해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 중 WCC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연관이 깊는데,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1974년부터 건강한 중간집단 육성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젝



현실 사회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아카데미 회원들의 대화모임

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WCC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단체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일까. 검찰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후원자인 WCC가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 시대는 WCC가 KGB의 손아귀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통하던 시대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인정했고 구속된 6인의 간사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공판은 근 1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사이 집행유예 혹은 무죄 등의 판결로 구속자들은 석방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눈에 박힌 가시

6인의 간사가 구속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다. 이미 그러한 사건을 예고하는 전사가 존재한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전신은 1959년 강원룡 목사의 주도로 결



이들, 이렇게 약 30여 명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이른바 전선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회개혁과 교회갱신을 목표로 두었지만 주로 이들의 활동은 학술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초기의 회원들은 일정한 토론 장소도 없이 회비 100원을 가지고 와 70원은 국밥을 사 먹고 나머지 30원으로 경비를 충당하며 토론을 했다. 답답한 시국과 더불어 열린 토론의 장을 목말라하던 이들에게는 그나마 이 단체는 한 모금의 냉수와 같은 것이었다.

1962년 8월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린 유럽 기독교사회운동기관협의회 회의에 참가한 강원룡 목사가 독일인 에버하르트 물러 박사로부터 무조건적인 후원을 약속받으면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는 활동 영역을 넓힐 전기를 마련한다.

특히 1965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용당산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종교의 공동과제' 대화 모임은 비록 기독교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불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6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모여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모임이었다. 이 역사적인 모임은 1965년 5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가 재단법인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탈바꿈한 뒤 처음으로 일궈낸 쾌거였던 셈이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수난은 1970년대에 들어서 가시화된다. 1975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내일을 위한 노래집'을 발간한다.

이 노래집에는 변역된 외국가요를 비롯해, 수집한 노래, 새로 만든 노래 등 모두 129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당시 운동권에서 이 노래집에 수록된 노래를 즐겨 불렀고 이 때문에 검찰은 노래집을 압수하였으며, 문제되는 노래를 삭제하여 비매품으로 하는 조건을 걸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11월 월간 『대화』를 창간한다. 월간 『대화』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기자회견**
 주최: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주관: 아시아 여성신학 교육원
 일시: 1992.8.9.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수원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아카데미 하우스의 대화모임에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1973년)

▼아카데미 하우스는 사회운동 단체들의 교육장소나 기자회견장으로 이용되었다. (사진 한겨레신문)

성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이다.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사회과학자 가운데 크리스찬 신앙을 지닌

는 당시로서는 무척 파격적인 잡지였다. 일반 노동자의 수기인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비롯해 '무등산 타잔'과 같은 글이 실렸다. 여타의 잡지들이 주로 지식인들의 글로 지면을 채우는데 비해, 월간 『대화』는 일반 노동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활동가들의 글로 지면을 채웠다. 그래서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여과 없이 잡지에 실릴 수 있었다.

언론부재의 시대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밝히는 데도 이 잡지는 한몫 톡톡히 했다. 그러나 월간 『대화』는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의 경고를 받은 끝에 결국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977년 10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다.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교회, 여성, 산업, 청년, 농촌의 영역에서 중간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중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잘 짜여진 틀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단계적 교육을 실시하는데, 집중교육을 비롯해 실습기간, 현장실험의 과정을 거쳐야만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다. 이처럼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므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이 프로그램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리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결국 '내일을 위한 노래집' 사건을 비롯해, 월간 『대화』의 폐간 등 1970년대에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그 곳이 박정희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1979년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놓인 것이다.

대화의 정신

수유리 4·19 국립묘지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이 차선 도로는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한다. 지난 가을 새로 정비했다는 구릿빛 가로등에는 3·1절에 내건 태극기가 여전히 걸려 있어 저 멀리까지 온통 태극기의 물결이다. 4·19 도로라는 가로명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가팔막진 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왼쪽으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있고 그 곳을 지나치면 오른쪽에 북한산 국립공원 아카데미 매





출판산업의 하나로 창간된 월간 「대화」

표소가 있다.

지금은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꾼 크리스찬 아카데미 입구는 매표소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다. 계곡으로는 새봄을 알리듯 명랑한 소리를 내며 맑은 물이 흐르고,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산 속 어딘가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려온다. 밝은 색상의 등산복 차림을 한 등산객 몇이 매표소를 지나 숲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어디선가 낫술이라도 마시고 있는지 즐거운 고함 소리도 들려온다.

입구를 지나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붉은 벽돌로 지은 대화문화 아카데미 건물을 만난다. 그 곳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야 아카데미 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호텔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래 아카데미 하우스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각종 세미나, 회의,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되던 곳이다.

사상계의 폐간으로 토론의 장을 잃어버린 지식인들이 이른바 자유로운 담론의 장으로 활용하던 곳이다. 아카데미 하우스가 사상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로서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1968년 4월 12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대화 모임 '국회와 국민'은 여당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 야당을 대표하는 신민당 의원, 국민

을 대표하는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이 모임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를 통해서도 대화 모임이 사상적,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좀 더 포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유명한 문학의 순수·참여 논쟁도 이 곳에서 이뤄졌다.

그렇다면 대체 '대화'란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25년 동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실무 간사를 지냈으며 강원룡 목사의 아들이자, 지금은 대화문화 네트워크의 대표인 강대인(56) 씨는 이렇게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뜻해요. 넓은 의미로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노사관계, 세대 간의 긴장, 지역 간의 대립과 같은 사회적 갈등관계를 정상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정신을 뜻하지요." 이러한 대화의 정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현장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본 아카데미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조사·연구하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봉사할 일꾼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형 물음표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영역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아카데미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운동의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기껏해야 사회개혁, 정치변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민주화운동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른바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운동의 불모지 시대였던 1960년대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들이 반드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실제로 불합리한 정권과 그

정권이 행사하는 폭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안전지대에 몸을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직접 전선 운동에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중간집단 즉,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서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를 조정할 건전한 세력의 형성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전위적인 제스처를 취해 사회개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인간성 회복과 사회개혁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영역들 즉, 여성, 환경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일찍이 고민과 문제의식을 제출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시대에 안전한 영역에서만 사업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혐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노력들이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감당했던 역할과 몫을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건 21세기형 물음을 찾아내는 것이다. 강대인 대표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생태계의 위기, 정보화와 세계화가 이끌어내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등 새로운 21세기형 물음에 답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현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공간,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입구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해왔던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이제는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변모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그들의 ‘말 걸기’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을 터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시도했던 대화들이 닫힌 가슴을 열고 이해와 화합의 공간으로 못사람들을 이끌어냈듯이, 앞으로도 그들은 끊임없이 닫힌 가슴들의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손 홍 규

1975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최명희 청년 문학상 소설 수상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바람 속에 눕다〉, 〈사람의 신화〉, 〈폭우로 감어 들어가다〉
〈아이는 가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 등 발표